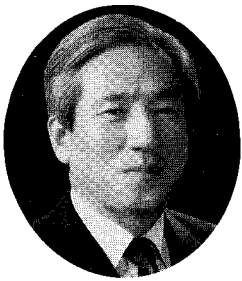


농어촌개발과 환경문제

KCID 이사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소장 **한 상 옥**



관개·배수·농지의 개발과 조성·정비개량 등을 포함한 농어촌개발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 하였으나 지역적인 조건과 지형 그리고 농업의 양상에 따라 제각기 특색을 달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의 지혜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개발 및 관리방법에 관련되는 기술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한 울타리안에 사는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식량 자원의 개발 차원에서 농업토목분야의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국내는 물론 해외와도 모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함은 물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관개배수, 홍수조절, 하천 개수 및 환경보존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어촌 종합개발에 관한 국내외 선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단체로서, 그 역사는 길지만 이제야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도약적인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우리 관개배수위원회는 이제까지의 생산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근대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재 점검해 보고 개발과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환경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각종 오염원이 크게 증가하고 오

염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는 형편에서 적절한 대처의 부족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질의 경우 과거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하천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오염현상이 이제는 본류와 지류까지 확산되고 있고, 대기오염도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은 그 처리가 미흡하여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의 2차 오염까지 일으켜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도시 및 공장지대의 환경오염은 농촌지역에도 점점 확산되어 농업용수 수질오염, 농경지의 폐기물 오염, 농촌 쓰레기,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영농화학 물질에 의한 농작물 및 농경지 오염 등의 농촌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도 자연 훼손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도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정주공간으로서의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의 영향으로 우리 농촌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형편이 되면 떠나가려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은 피폐해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유하더라도, 더러운 오폐수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쌓이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짜증스러우며 삭막하고 답답한 병든 사회일 수밖에 없다.

현재 농촌에 사는 사람은 물론, 도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을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맑고 푸르고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농업관련 전문기관에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또한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의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농업 토목인의 모임인 KCID가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이미 1981년 7월에 미국에서는 「서기 2000년 지구」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의 인구, 자원, 환경의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제기하였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서기 2000년의 세계는 현재와 비교해서 한층 더 인구가 조밀하고 오염이 증가되어 생태학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며, 또한 붕괴위험이 높은 세계가 될 것이고, 인구, 자원 및

환경에 의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물질 생산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인간들은 여러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도가 높은 예측도 있다.

이와같은 선진국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우리의 사고를 버리고 먼 앞날을 내다 보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발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뒤늦게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0년 환경청을 발족시켰으며, 1994년 말부터는 환경부로 격상하여 환경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획기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이 투자 계획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와 광역상수도원의 수질 보전대책, 즉 대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과 4대강 유역의 중소도시 하수처리장의 건설 계획이 주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은 농림수산부가 대책을 수립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1994년 12월에는 농어촌 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고,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상하수도 시설 등 종합적으로 농어촌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은 구조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환경오염의 대책 시설은 물론 문화, 역사적 자원의 개발과 보전, 레크레이션 자원의 정비, 생태계의 보전, 수질개선 및 친수(親水)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도시민이 되돌아와 살고 싶은 곳,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자연과 조화있게 종합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토목분야의 기술이 농촌의 자연환경을 무대로 종합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있는 연구 개발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